



아 텔 리 움 글 마 루 도 서 관

#경기도 용인시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지원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만나고...

도서관에서 책 이야기, 우리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힘이 되고 꿈이 되는 곳이기를 희망하는 아텔리움글
마루도서관입니다.

‘글마루’라는 이름은 주민들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2010년 12월 24일에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아파트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도서관 이름을 지어주세요>. 부상은 문화상품권 만원. 32대 1이라는 경쟁률과 1차 투표, 2차, 3차 심사를 거쳐 ‘아텔리움글마루도서관’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지요. 그게 벌써 7년 전이네요.

건설사에서 넣어준 책 1,000권과 두 쪽 벽에 서가만 있던 옛날, 헝한 빈 공간에 놓이 터에 있는 평상을 굴러와 넣고 쓰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은 도서관이 정말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성장해 온 우리 글마루가 긴급지원119사업 덕분에 낡은 서가도 단장하고 그 어느 해보다 예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아델리움글마루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 휘었던 서가를 교체하고 슬라이딩 서가 공사를 한 후의 모습

2017년 12월 24일, 일곱 번째 생일잔치를 했으니 글마루도 어느덧 햇수로 치면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동안 도서관에서는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매월/매주 행사로는 이야기 극장, 영화 상영, 영어동화 읽어주기, 음악동아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중행사로는 단오행사, 백일장, 도서관에서 하룻밤행사, 할로윈 파티, 역사나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2015 푹푹푹 수요일에 만나요>, <2016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등의 외부사업도 진행해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보수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해 2010년 입주 당시의 서가를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반납대출용으로 1대 있던 컴퓨터도 7년 만에 올해 처음, 그것도 본체만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긴급지원119사업을 통해 낡은 서가를 교체하고 이용자용 컴퓨터도 들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처음 긴급지원119사업 공고가 떴을 때 떨 듯이 반가운 마음 반,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반이었습니다. 시설보수가 된다니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인력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에서는 사업을 하는 그 자체가 부담도 되니까요. 어찌나 갈등을 했던지 서류를 접수하고 보니 6시 마감 1분 전이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을 잘 마칠 수 있어서 뿌듯하고 꼼꼼히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긴 고민 끝에 긴급지원119를 계기로 용기를 냈습니다. 서가 교체와 함께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슬라이딩 서가도 달았습니다. 글마루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진행할 때 공간을 많이 바꾸는 편입니다. 이야기 극장을 상영한다 하면 바퀴가 달린 낮은 서가를 이리저리 옮겨 극장처럼 공간을 다시 만드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크고 높은 책장을 도서관 가운데 두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를 더해가면서 책은 늘어나니 책 꽂기가 어렵고, 슬라이딩 책장을 달자니 혹시라도 아이들이 다칠까봐 걱정도 되어 이번 기회에 용기를 냈습니다.



도서관 개관 후 출근 차 순위로 밀려났던 시설 개선과 물품 확충이 이루어져 깔끔한 도서관 환경을 갖추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도서관 이용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노후서가 교체와 북 트럭 구입 등을 통해 도서관의 환경이 정돈되자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고, 이용자용 검색 PC가 설치자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바라던 대로 도서관 이용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확실히 자유롭게 도서검색을 하는 이용자가 많아졌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 보조 PC를 통해 반납대출을 할 수 있는 것도 무척 만족해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서가 공사 시에는 적극적으로 휴관에 협조해주셨지요. 공사 이후에는 도서관에 오셔서 “서가가 이렇게 바뀌었군요!”, “도서관이 깨끗해졌네요!”, “도서관이 좋아졌네!” 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가 쑥 올라간 게 좋기도 했지만, 반면에 평상 놓고 이용자를 맞았던 옛날 생각이 나서 울컥하기도 했던 한해였습니다.

아텔리움글마루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2017년에는 도서관 내부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사로 인한 모습의 변화도 있지만, 분위기도 보다 활기차게 바뀌었습니다. 공사 후 주민을 대상으로 바느질 강좌가 1개 열렸고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22일 도서관 생일잔치 때 선보일 강좌와 공연을 더욱 활기차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 후 도서관의 달라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서관 7년의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 ‘글마루 아카이빙’에도 욕심이 생깁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돌아보면 작은도서관 일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행복하고 뿌듯했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배우고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도서관을 시작했던 첫 마음을 잊지 말고 나아갑시다.